

I. 動向과 展望

1. 美國의 高金利 政策

- 16일 美國 短期金利 0.5%p 引上
- 景氣過熱 및 物價上昇 憂慮가 引上 背景
- 95년까지 1%p 追加 引上 展望

- 過去 推移:

- 미국은 92-93년에 景氣回復을 위하여 低金利政策을 사용(實質金利 0% 근접)

<美國 再割引率의 推移>

期	自	-	90.12	91.02	91.04	91.09	91.11	91.12-	92.07	94.05	94.08
間	至	90.11	91.01	91.03	91.08	91.10	91.11	92.06	94.04	94.07	-
割引率		7.0%	6.5%	6.0%	5.5%	5.0%	4.5%	3.5%	3.0%	3.5%	4.0%

- 最近 變化:

- 16일 미국 聯邦準備理事會는 短期金利를 0.5%p 引上
 再割引率(discount rate): 3.5% → 4.0%
 聯邦基金金利(federal fund rate): 4.25% → 4.75%
- 金利引上이 달러價値에 이미 반영된 상태여서 달러換率에는 큰 변동 없었음
- 銀行의 優待金利(prime rate)는 7.25%에서 7.75%로 引上되었음

- 引上 背景:

- 物價上昇 壓力 緩和와 건실한 成長基調 維持
 1/4분기와 2/4분기의 GDP 成長率이 각각 3.4%와 3.8%를 기록하고
 7월중 都賣物價가 0.5% 上昇하고 新規雇用人力이 26만명을 기록하여
 景氣過熱과 物價上昇이 우려되었음
- 달러貨 價値 防禦:
 低달러가 美國景氣에 좋지않다는 데에 美國 高位層의 공감대 형성

- 展望:

- 物價抑制를 위해 短期金利는 95年末까지 1%p 정도가 追加 引上될 展望임
 物價上昇率이 95년에 연률 3.5-4.0%까지 上昇할 展望임(94 상반기: 2.8%)
- 달러貨: 미국의 金利인상과 함께 유럽국가들과 日本도 金利를 引上할 것으로
 展望되어 달러 換率에 큰 영향은 없을 것임. (한 상 완)

2. 元貨 換率의 動向과 政策課題

- 最近 元貨 換率 弱勢는 一時的인 現象
- 年末 展望: 790-795
- 貿易收支 均衡을 위해 필요한 元貨 換率은 810-815

- 最近 動向

- 802원 수준을 유지하던 元貨換率은 8월 9일 이후 切下하여 17일 806.1, 18일 804.7을 기록하는 등 弱勢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一時的인 現象으로 보임
- 最近 元貨 弱勢의 原因
 - 달러需要 側面: 8월 10일을 전후로 달러 결제수요 급증, 월초에 달러 선물을 매각했던 금융기관들의 달러 매입, 원화 수요 감소
 - 달러供給 側面: 금융기관 달러 보유물량 부족, 수출 및 외국인 주식투자 등에 의한 달러 공급물량 감소

- 元貨 換率 展望 : 790-795

- 外換 需給: 하반기중 60-70억 달러의 달러 純流入 추정 (經濟企劃院)
- 短期 換率: 802-805 수준, 年末 換率: 790-795 수준 전망
- 800원 突破 時期: 94년내 실시 예정인 外國人 株式投資限度가 擴大되는 시점에서 800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 貿易收支의 均衡을 위해 필요한 元貨 換率: 810-815

- 89-93년까지 원화는 667에서 808로 21% 切下하였으나, 주요 交易相對國과의 物價上昇率과 賃金上昇率 差異를 감안하면 별로 절하하지 않았음
- 對東南亞 換率도 物價上昇率 差異를 감안하면 89년과 비슷한 수준임
- 物價와 賃金上昇率, 貿易收支를 고려한 適定 元貨換率은 810-815로 추정됨
業界要求 換率水準: 810원 (1,000개 輸出企業 조사, 貿易協會 8월9일)

- 企業 競爭力 提高를 위한 政策 提言

- 한국 기업들은 85-89년의 元貨換率 切上(25%)과 87-92년의 賃金上昇(153%, 연 평균 17%)으로 追加的인 價格競爭力 惡化를 소화할 여력이 없음
- 따라서, 外國人 株式投資限度를 95년 이후에 小幅 漸進的으로 擴大하고, 각종 海外資金 調達은 시설재와 같은 現物搬入에 우선 許容하여 달러 流入에 의한 元貨의 급격한 切上을 막아야 할 것임. (한 상 완)

3. 下半期 國際收支 展望

- 動向: 上半期 經常收支 27.1억 달러 적자
- 政府의 政策: 輸出 促進과 輸入 抑制를 통한 國際收支 개선대책 마련
- 下半期 展望: 10억 달러 정도의 經常收支 赤字 예상

- 上半期 經常收支는 前年 同期에 비해 적자 폭이 15억 3천 7백만 달러 확대
 - 貿易收支는 景氣 回復에 따른 資本財 輸入의 急增에 따라 적자폭이 늘었음.
 - 貿易外收支도 기대에 못미친 관광 수입과 해외 송금 증가, 수출입 확대에 따른 각종 경비 지급 증가에 따라 적자폭이 증가

<94년 상반기 경상수지 실적>

	경상수지	무역수지		무역외수지	이전수지	
		수출	수입			
93년 상반기	-1,174.1	-525.8	38,531.3	39,057.1	-793.5	144.6
94년 상반기	-2,711.3	-1,588.0	43,116.4	44,704.4	-1,329.5	206.2
증감액, 증감률	-1,537.2	-1,062.2	11.9%	14.5%	-536.0	61.6

- 政府는 上半期 國際收支 赤字가 예상외로 확대됨에 따라 수출 촉진과 수입 억제 정책을 중심으로 下半期 國際收支 管理 對策을 수립(특히 最大 赤字國인 日本에 대한 적자액을 100억 달러 선에서 억제)
 - 輸出促進 政策: 해외전시회 참가 유도 및 수출촉진단 파견, 해외시장개척기금의 확대 지급, 업체와의 접촉을 통한 수출 독려 및 애로사항 해결, 수출선수금 연도 확대, 수출용 원자재의 연지급수입기간 연장 등
 - 輸入抑制 政策: 수출입공고·통합공고·수입선다변화 품목 등에 적용되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수입품의 국내 제포장 검사, 품목 분류, 세액 심사 등을 강화
- 政府 政策의 效果와 季節的인 要因으로 인해 下半期 貿易收支는 黑字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經常收支도 黑字 轉換 예상
 - 年間으로 貿易收支(國際收支 基準)가 均衡 내지는 소폭의 黑字를 보이고 經常收支는 10억불 정도의 赤字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정 반 석)

4. 主要 企業의 上半期 營業 實績과 評價

- 上場社들 今年 上半期 收益 中心의 好況 謳歌
- 大型 製造 業體, 輸出 業體가 實績 好轉 主導
- 製造業의 賣出 增加 效率性 향상 뚜렷
- (現代)自動車, 仁川製鐵, 綜合商事, 精工은 業種 平均 以上の 實績 示顯

- 上場社들 今年 上半期 好況 謳歌

- (賣出) 93년 상반기 대비 17.4% 증가(93년 상반기 同7.4%, 92년 상반기 同 19.3%). 好調 제조 업종은 의복, 운수장비, 전기전자, 일반기계
- (經常利益) 제조업 주도로 93년 상반기 대비 48.7% 증가, 87년 상반기(71.6%) 이후 최고. 好調 제조 업종은 섬유, 일반기계, 식료, 전기전자, 운수장비
- 中小 業體보다는 大型 製造 業體, 內需 業體보다는 輸出 業體가 실적 호전 주도
- (경상 이익 증가율/매출액 증가율)을 보면 제조업의 賣出 增加 效率性 向上이 뚜렷(특히 일반기계, 석유정제, 식료, 섬유 등 경공업, 전기전자, 운수장비, 석유화학)

- 營業 實績 好轉의 主要因

- (賣出) 내수 경기 확장 국면 진입, 엔高에 따른 수출 증가
- (經常 利益) 매출 증가로 設備 稼動率이 높아져 固定 費用 減少, 엔高에 따른 수출 증가 중에 輸出 單價 上昇, 金利 下落에 의한 金融 費用 減少

- 現代 系列 上場社 評價

- 賣出 好調: 自動車, 精工, 綜合商事, 自動車서비스, 大韓알루미늄, 仁川製鐵의 매출액 증가율은 각각 소속 업종의 평균 以上
- 自動車, 仁川製鐵, 綜合商事는 經常 利益 增加率이 賣出額 增加率을 상회. 同 상회율은 所屬 業種 平均을 넘음. 精工은 흑자로 전환
- 東西産業, 鋼管, 尾浦造船, 建設은 매출액 증가율 및 경상 이익 증가율 모두 업계 평균 以下
- 自動車A/S와 大韓알루미늄은 매출액 증가율이 업계 평균 以上이고, 경상 이익이 減少했으나 감소율은 업계 평균 以下

(오 성 중)

主要 業種別 12月 決算 法人 94年 上半期 營業 實績

구 분	매 출 액(억 원)			경 상 이 익(억 원)			B/A (배)
	93 上	94 上	증감율(A)	93 上	94 上	증감율(B)	
전 체	859,567	1,009,230	17.4%	25,015	37,184	48.7%	2.8
제 조 업	500,257	585,301	17.0	9,742	17,822	82.9	4.9
경 공 업	83,192	94,087	13.1	11	901	81.9	6.3
화 학	40,897	46,215	13.0	1,433	2,314	61.5	4.7
(석유화학)	34,900	39,098	12.0	1,257	2,016	60.4	5.0
석유정제	44,617	47,607	6.7	845	1,486	75.8	11.3
비금속광물	19,119	20,884	9.2	997	898	-9.9	-1.1
(풍서산업)	619	631	2.0	18.5	13.9	적자 전환	-
철 강	62,586	69,456	11.0	1,942	2,127	9.5	0.9
(인천제철)	5,338	6,277	17.6	158	267	68.7	3.9
(현대강관)	1,565	1,713	9.5	5.6	5.7	1.8	0.2
일반기계	13,942	16,866	21.0	47	209	347.4	16.5
전기전자	115,240	142,053	23.3	3,009	7,333	143.7	6.2
운수장비	83,816	106,727	27.3	696	1,652	137.2	5.0
(현대자동차)	33,584	42,745	27.3	214	867	305.3	11.2
(현대중공)	5,816	7,220	24.1	-148	85	흑자 전환	-
(현대마포)	723	853	17.9	49.4	15.0	-69.6	-3.9
비 제조업	359,309	423,929	18.0	15,273	19,363	26.8	1.5
건 설	79,144	91,286	15.3	2,055	2,244	9.2	0.6
(현대건설)	11,850	13,421	13.3	198	139	-29.9	-2.2
도 매	147,257	172,598	17.2	726	497	-31.6	-1.8
(현대중상)	50,996	63,235	24.0	44.2	56.6	28.1	1.2
(현대카/S)	18,388	22,697	23.4	260	228	-12.4	-0.5
(대한알미늄)	827	1,012	22.3	3.4	3.0	-11.8	-0.5
유통서비스	9,239	11,265	21.9	130	395	204.6	9.3
운수창고	18,095	20,959	15.8	-73	527	흑자 전환	-
통 신	3,324	5,120	54.1	824	1,183	43.7	0.8

자료: 한국경제신문, 1994.8.16에 의거 작성.

- 주: 1) 분석 대상은 전체 547 개 12월 결산 상장사 중 관리 종목을 제외하고 실적이 공개된 회사 중 지난해와 실적 비교가 가능한 482 개 기업임.
- 2) 경공업은 식료, 음료, 섬유, 의복, 피혁, 종이 등임.